

홀트 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2016
Autumn

vol.183



가을 이야기

홀트드림센터가 있는 캄보디아 안찬지역은 배수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비만 오면 센터 앞마당에는 작은 호수가 생기곤 합니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이지만, 홀트드림센터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아이들을 만나봅니다. (7P 계속)

사진 | 홍보팀장 김병수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83호 · 기간 발행일 | 2016년 9월 9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백상옥(자원개발실장), 김병수(홍보팀장), 조선미(국내입양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이은정(해외사업팀장), 박꽃송이(나눔협력팀장), 박재범(나눔지원팀장), 이창신(일산복지타운), 신유정(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알투디투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171 FAX: 02-331-7149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 · 좋은 사연 · 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사회 말리 홀트 이사장 이해경 이사(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임부웅 이사(HICS 부회장) 정용근 이사((전)동국대학교 교수) 설태호 이사(주목상사 대표) 김경희 이사(전 홀트한국후원회 회장)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교수)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T.032)424-1391 전주영아원 T.063)222-1559 홀트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
본부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02)331-7000 T.1588-7501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T.031)914-6631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T.053)563-1007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름들 www.hollarum.or.kr T.02)334-4614 고운들·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아침들 www.achim.or.kr T.042)585-3004 마포클로버 www.mapoclover.or.kr T.02)322-3325 대전클로버 www.djclover.or.kr T.042)583-4006 대구클로버 www.holtlove.or.kr T.053)654-0181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경남사무소 www.gnholt.or.kr T.055)243-000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6 입양가정지원센터 T.02)6938-5550 홀트 대구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홀트 광주심리상담센터 T.062)363-8878 홀트 인천심리상담센터 T.032)424-5839	해외원조사업 캄보디아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몽골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4006-4116 탄자니아(홀트드림센터) T.02)331-7085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설립되어 소외된 아동·장애인·이웃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이며 전국 10개 사무소를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아이들을 품는 홀트를 꿈꾸며

변함없이 진행되는 자연의 섭리 속에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땀 흘린 농부가 풍성한 추수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홀트가 수행하는 모든 복지 사업 현장에서도 충실한 결실을 거두길 기대합니다.

전 세계는 혼란 속에 빠져 있고, 국가 경제는 어려움을 더해가고, 민심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인권의 존중을 외치지만 강력범죄나 아동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트가 추구하는 '사랑을 행동으로' 모든 이웃을 섬기는 일은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뒤숭숭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회 곳곳에서 묵묵하게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홀트가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큰 꿈은 품고 있으나 그 꿈을 표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꿈을 발굴하기 위해 '제10회 아름다운 청소년'을 선발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3년마다 열리는 세계한인입양인대회(KAA Gathering) 행사도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나라에 흩어져 생활하는 입양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보다 나은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불어넣어주는 유익한 행사였습니다.

또한 탄자니아에 이어 이번에는 네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펼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많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 중 일부에게라도 홀트가 다가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팔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홀트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홀트의 사명인 이웃 사랑을 믿고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홀트는 후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우리가 돌보는 많은 수혜자들에게 정직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홀트를 믿고 후원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김대열 드림

함께해요~ 국내 최초 입양 팟빵 '입양톡 사랑톡 토크'



혹시 국내 최초의 입양 팟캐스트(인터넷 라디오)인 '입양톡 사랑톡 토크'이란 프로그램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론에서 다루지 못하거나, 입양 가족이 전하고 싶거나 혹은 궁금해지는 내용을 속 시원하게 전하기 위해 입양 가족들이 패널로 참여, 기획한 프로그램인데요. 입양 가족과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청취자들에게도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그 현장이 궁금해 7월의 어느 무더운 날, 서울시 사당동의 한 스튜디오로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 **홀트** 우선 입양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 **윤샘(윤혜숙)** 저는 예서, 예찬, 예술, 예림 2남 2녀의 엄마고요. 네덜란드에서 살 때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인학교에 다니는 걸 보고 입양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돼 넷째인 아들 예서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2007년 5월 생후 2개월의 아이를 만났는데, 어느덧 10살이 됐네요(웃음).

● **달달이(정정조)** 전 1993년이었던가... 어느 목사님이 자신은 입양가족이라고 당당히 얘기하시는 걸 듣고 굉장히 놀라면서도 저도 언젠가 입양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당시만 해도 공개입양 문화가 없을 때였거든요. 결혼 8년 후 첫째를 입양했고, 3년 후 쌍둥이가 태어나 세

딸의 아빠가 되었죠. 그런 이유로, 또 제 인생과 가정이 달달해서, 여러분에게 달달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달달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 **쌘지아빠(박요한)** 저는 신생아 때 홀트를 통해 입양이 된 경우예요. 2년여 전 자전적 에세이인 <요한의 고백>을 발표한 이후로는 홀트 패밀리로도 활동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 돌림자가 '지'여서 3G라는 의미로 '쌘지아빠'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하.

● **엘로우마마(박정은)** 저는 2014년 홀트를 통해 10개월 된 여자 아이를 입양했고요. 저희 애가 무슨 이유에선지 노란색만 보면 "엄마 색이다~!"며 노란색 물건은 막 가져다주기도 하고 해서 엘로우마마라는 닉네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2009년부터 반편견 입양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교육차 대전에 가면서 역시 회장님 차를 타게 됐대요. 그때 자신의 계획을 얘기하 시길래 '아~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이후 "고기 구웠으니 아이들 데리고 집에 놀러 오라"는 얘기에 갔더니 글썽 그날이 입양톡 패널들 첫 모임이었다네요. 하하하.



엘로우마마

● **홀트** 언론 매체에는 대본과 계획 없이 방송을 진행한다고 소개돼 있던데 정말인가요?

● **엘로우마마**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무대본에 무계획이죠. 의욕이 앞섰고, 초보들이기에 될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오늘에 이른 폐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편지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너무 산으로 가서 앞으로는 누구라도 정리를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다 떨며 놀고 편집으로 만지는 게 우리 방식인데, 1회당 20시간 가까이 편집을 하거든요. 현재는 회장님의 사비로 운영하는 거라 전문 인력을 쓸 여건이 안 되지만, 개인과 기업의 후원이 이뤄져 함께 만들어 가는 방송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달달이



● **홀트** <입양톡>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건 홀트한사랑회 신용운 회장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다들 어떤 식으로 간택을 당하신 거죠?

● **달달이** 쌘지아빠는 평소에도 '형님' '아우' 하며 지내는 사이라 제안에 흔쾌히 응하셨고, 나머지는 납치당하다시피 했어요. 특히 엘로우마마님은 <오마이뉴스> 해외입양인 인터뷰 통역으로 따라갔다가 우연히 회장님 차를 타면서 코를 꿰이게 됐죠. 불쑥 "내가 팟캐스트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당신도 오시오"라는데, 통역으로 너무 지친 와중이고, 새벽의 고속도로에서 도망칠 곳도 없고,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분께 감히 반항할 엄두가 안 났다나요? 그리고 보니 윤샘도 비슷하네~ 한국입양홍보회에서

● **홀트** 게스트를 자주 초대하던데 어떤 기준으로 섭외 하나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 **쌘지아빠** 섭외는 회장님 마음(웃음)! 한국입양홍보회 고경석 회장님 부부, 성인이 된 후 입양된 신성훈 님, 어릴 때 입양된 고경석 회장님의 딸 고예란 님, 홀트아동복지팀의 조선미 팀장님 등 모든 분이 다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아무래도 첫 초대 손님이었던 한국입양홍보회 스티븐 모리스 이사님 부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공개 입양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잖아요. 늘 감동을 주는 그분의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었죠. 윤샘은 고경석 한국입양홍보회 회장님 부부가 가장 기억에 남는 다터군요. 한국 공개 입양 문화를 시작

한 분으로, 공개 입양 1세대인 큰딸 고예란 양이 당당히 잘 크도록 사랑으로 인내한 이야기를 들으며 무척 존경스럽고 감사하기 까지 했다고요.

● **홀트** 방송이 10회 이상 진행됐어요. 입양의 긍정적인 점이 대중에게 잘 전파되고 있는 것 같나요? 피부에 와 닿는 청중의 반응은 어떤가요?



윤샘

● **윤샘** 주변의 편견으로 인해 마음 고생하는 입양가족들을 위로하는 게 <입양톡>의 첫째 목표였는데, 지난 3개월간 기대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불안함이 많이 해소돼 입양을 실행할 용기를 얻었다' '입양 준비 과정에서 가족을 설득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반응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특히 첫 방송 직후 달린 '셋째 입양을 고민 중이었는데 방송을 듣고 결정하게 됐다'는 댓글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따뜻한 가정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들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런 반응이 이어지니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굉장했어요. 씬시아빠는 주변에서 입양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이 많아 '입양은 가족이 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라는 슬로건이 젊은 부부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전해지는 느낌을 받으신대요.

● **홀트** 패널들의 태도도 처음과는 달라졌을 듯한데요

● **윤샘** 얼떨결에 시작했지만 청취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경험한 지금은 '좋은 방송을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야겠다'나, '입양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 입양에 대해 고민할 때 "입양톡 찾아 들어봐"라고 추천할 수 있는 인텔스가 된다면 정말 좋겠죠.

● **씬시아빠** 무엇이든 초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입양가족으로 살아가는 희로애락을 소소하게 공유하며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다는 처음의 바람, 잘 지켜내고 싶습니다.

● **홀트**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씬시아빠

● **엘로우마마** 저희는 방송 열심히, 잘 만들 테니 청취자들은 자주 듣고 널리 홍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양을 고민하실 때 지인이나 가족에게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입양가족에게 조언을 구하시거나 입양 기관을 방문해 상담받아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을 때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 **윤샘** 연세가 있는 입양가족들에게는 팟빵이라는 매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찾아서 들어주시고, 방송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도 표시해주신다면 정말 좋겠어요. 방송은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입양가족들의 진솔한 모습을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동시에 '입양'이라는 테마가 청취자들의 인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따뜻한 가정의 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입양톡 사랑톡 토크>. 우리도 당장 오늘부터 그 아름다운 길에 동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 검색창에서 '팟빵'을 검색, 접속한 후 '입양톡 사랑톡 토크'를 찾아 들어보세요. 바로 여러분이 보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겁니다. **홀트**



캄보디아에도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내에 위치한 거대한 쇼핑몰에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불과 1시간 떨어진 홀트드림센터에는 배움을 위해 쓰레기와 오물이 나뉘는 거리를 맨발로 걸어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만이 가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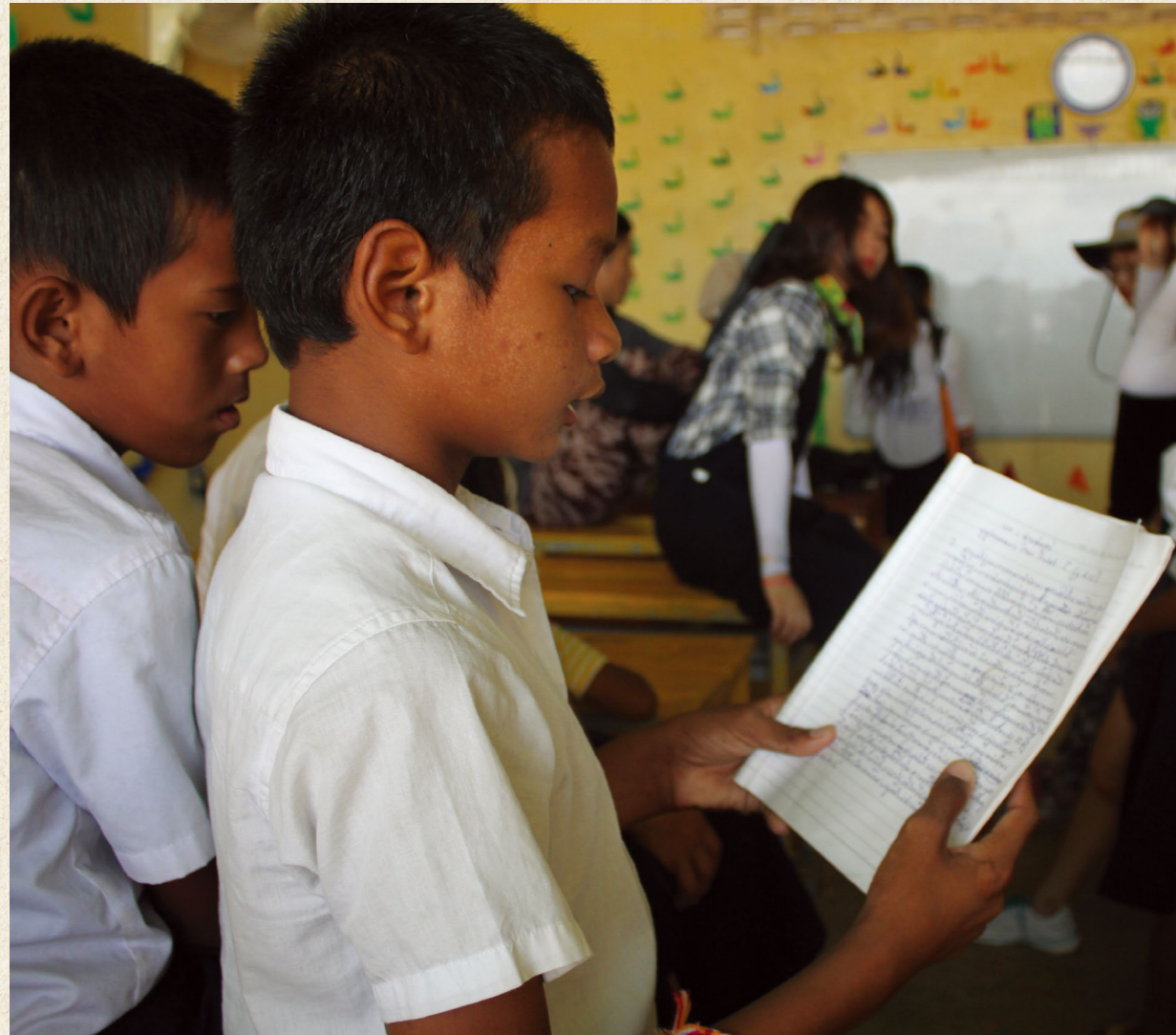
홀트는 미래를 꿈꾸는 이 아이들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희망의 징검다리, 홀트드림센터 방과 후 교육

스론 비스나(12세)는 요즘 공부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의사가 되어 HIV 감염자인 엄마를 고쳐주고 싶다는 소년.
홀트아동복지회는 비스나와 같이 빈곤과 무지로 힘겹게 살아가는 캄보디아 아이들 200여 명에게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징검다리가 된 홀트드림센터 교육 사업의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해 살펴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스론 비스나



1 센터에서 제공되는 급식을 먹는 아이들 2 방과 후 교육 중, 영어수업
3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 4 트라피앙 안전지역의 열악한 환경

방과 후 슬럼가에 방치된 아이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도심 개발로 강제 철거를 당한 이주민이 모여 사는 슬럼가인 트라피앙 안전. 이 지역은 도시 철거민들의 집단 거주지로 아이들이 방과 후 방임되거나 노동에 동원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2011년부터 트라피앙 안전 지역에서 아이들의 초등학교 유급률과 중퇴율 감소를 목표로 홀트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홀트드림센터에는 안전초등학교 정원 837명 중 200여 명의 아이들이 영어와 특별활동 수업 등 다양한 방과 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스론 비스나도 홀트드림센터의 방과 후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센터의 우수학생으로 선정돼 4박 5일간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중 직업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어보고 청진기도 직접 만져보니 의사가 되겠다는 꿈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후 출신수범해서 청소는 물론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한다고 홀트드림센터 추소킨 선생님이 말합니다. 홀트는 올해 가을 6명의 캄보디아 아동을 한국으로 초청할 예정입니다.

홀트드림센터 활동 이후 중퇴율 0%

트라피앙 안전 초등학교의 중퇴율은 홀트드림센터가 활동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0%로 떨어졌습니다. 국제개발처(USAID)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캄보디아 초등학교 평균 중퇴율은 8.7%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고려할 때 트라피앙 안전 초등학교의 중퇴율 감소는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안전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의 중퇴율을 낮추는 데 홀트드림센터가 큰 힘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홀트드림센터의 사업이 지속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홀트는 중퇴율을 0%로 유지하는 한편 8.61%에 달하는 유급률 감소를 위해서도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함께 유급반 교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유급률과 중퇴율 감소 못지 않게 학교 교육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캄보디아 초등학교 교사 역량 강화와 빈부 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 학교장 포럼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글 _ 이필영 · 해외사업팀

* 방과 후 교육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파트너십으로 진행됩니다.



10기 아름다운 청소년 캠프

우리가 아름다운 청소년입니다!

아름다운 청소년이 10회를 맞았습니다. 2006년 여름을 시작으로 홀트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뜻을 모아 이룬 결과인데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청소년, 선행을 배풀며 살아가는 청소년, 자신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청소년 등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아름다운 청소년을 만나봅니다.

존재만으로도 선물인 청소년

2016년 8월 11일, 제10회 아름다운 청소년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홀트 강당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샘DBEW 연구재단 윤서호 실장, 한국어성재단 이혜경 이사장, 선 홍보대사도 참석해 주었는데요. 특히 선 홍보대사는 “미국에서는 출석을 부를 때 Present!라고 대답을 한다”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선물인 여러분을 축하한다”는 감동적인 축하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축하공연으로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들려준 8기 수상자 박지현 양을 비롯해 새로운 아름다운 청소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준 선배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생님이 아름다운 학생에게

이번 10회 아름다운 청소년에는 특별한 인연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2기 아름다운 청소년이었던 박하늘샘 선생님과 10기 김강민 학생인데요. 박하늘샘 선생님은 “연탄나르기 봉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다가온 학생이 강민이었어요. 예전에 봉사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좋은 기분으로 같이 봉사를 했어요. 강민이라면 아름다운 청소년에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해서 모집 공고를 보자마자 추천했습니다. 제가 가진 꿈을 강민이와 나눴듯이 강민이도 자신의 꿈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청년(青年)이 된 선생님이 아름다운 청소년(靑少年)인 강민의 꿈을 이루게 도와준 것이죠. 앞으로 홀트는 계속해서 꿈을 가진 청소년을 지원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글_ 우은영 · 홍보팀



▶ 연탄나르기 봉사를 함께한 박하늘샘 선생님(좌)과 김강민 학생(우), 선 홍보대사와 함께

2006~2016 10년 동안 배출한 아름다운 청소년 100명

최연소 아름다운 청소년 16세

아름다운 청소년을 위한 지원금 220,000,000 원

숫자로 보는 아름다운 청소년

- 1 제10회 아름다운 청소년 시상식
- 2 홍보대사 송재호 씨와 함께(2009년)
- 3 '우리 친해져요' - 레크리에이션(2010년)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Q1 본인에게 아름다운 청소년은 어떤 의미인가요?

Q2 수상 당시 꿈과 지금의 꿈은?

Q3 올해 10기 아름다운 청소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

2기 박하늘샘
(28, 전국고등학교 교사)

- A1** 저에게 아름다운 청소년은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한 상이었어요. 그 상을 통해 많은 경험을 했고,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대단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A2** 이전에는 산악 연구원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학생들의 꿈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 A3** 비록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원하는 꿈을 이루세요!

- A1** 우리는 스스로 가진 희망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강한 확신을 가집니다. 원대한 꿈을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귀감이 되고, 꿈을 각인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 A2** 이전에는 컴퓨터 교사였지만, 현재는 웹마스터 기술 교육자입니다.
- A3** 각자가 가진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꿈에 도달하는 길목에 놓인 표지판이 되리라 믿습니다. 선배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 힘들 때 언제든지 물어보면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기 천재욱
(23,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 A1** 저를 있게 해준 디딤돌이자 스스로를 되새기게 해준 베이스캠프입니다. 꿈에 대한 확신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 A2** 전에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청소년 전문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함께 의논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코칭 전문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변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꿈이 바뀐 거 같아요.
- A3** 각 분야에서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라는 걸 깨닫고 뿌듯해 해도 좋을 거예요.

3기 이영호
(24, 건국대학교 인터넷미디어공학부)

4기 이준석
(26,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전문대학원)

- A1** 국제법 전문가의 꿈에 대한 확신과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꿈을 향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A2** 과거나 현재나 꿈은 같습니다. 국제법을 전문 분야로 공부하면서 국제법 전문가 및 법조인에 대한 꿈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 A3** 꿈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든 홀트와 한샘, 그리고 아름다운 청소년 가족들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 A1**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강한 자기 확신을 얻었습니다. 공기업 홍보대사, 대학캠프 강사와 같은 대외활동을 하는 데도 자신감을 주는, 단단한 주춧돌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 A2** 수상 당시에는 시인이었지만 현재는 시인과 기자의 삶을 겸비한 '문인 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 A3** 꿈은 또 다른 꿈으로 전이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길을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주위를 둘러보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아직 청춘의 첫 페이지에 머물러 있으니 조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든 나아가면 됩니다.

5기 공태현
(25,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8기 박지현
(21, 유학 준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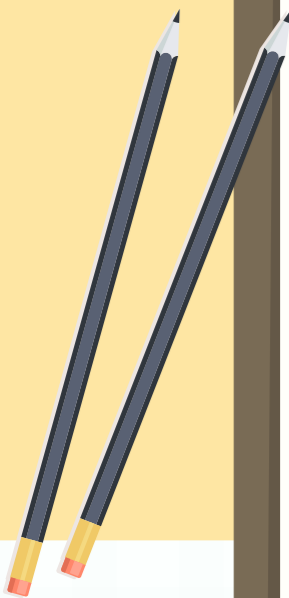
- A1**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 큰 꿈과 목표를 세워 본인 스스로를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A2** 변함없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줄리어드 음대 교수입니다. 다만 지금은 대중들에게 '클래식 음악 작곡가 박지현'으로 확실하게 남고 싶다는 꿈을 추가하게 되었어요.
- A3**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것 같이 괴로워도 나중에는 '아, 그때는 그랬었지'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 A1** '선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학창시절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다양한 분야에 꿈을 가진 친구들과 새로운 시야를 볼 수 있게 해준 시작점이었습니다.
- A2** 수상 당시에는 행복을 제공하는 '은행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미혼모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홀트학교'를 세우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 A3** 삶이 무료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꿈은 꿈은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10번째 아름다운 청소년이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가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기 하우정
(20, 방위산업체 근무)

9기 이우범
(20,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 A1** 보물창고 이상의 값진 존재입니다. 꿈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매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A2** 청소년지도사의 꿈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성공을 찾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 A3**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청소년 시기의 경험을 통해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기 바랍니다. 도전과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움

바리스타 싱글맘 양민하 씨

'가정 환경이 불우해서' '가난해서' 등의 이유로 배움을 등한시하는 건 어찌 보면 비겁한 일입니다. 연우 엄마 양민하(가명) 씨의 생각 또한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생각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빠듯한 살림을 꾸리면서도 배움을 통해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그녀를 만나보았습니다.



미혼한부모를 지원해주세요

1899-0923 / 02-331-7082
www.holt.or.kr

홀트아동복지회는 미혼한부모의
자립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것을 이겨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민하 씨는 정말 씩씩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분명 마음 여기저기 많은 상처와 생채기가 덕지덕지 앉아 있을 텐데도 이렇듯 씩씩하게 사는 걸 보면 말입니다.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체벌을 가하셨어요. 새어머니가 자주 바뀌는 편이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지도 못했고요. 결국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가출을 감행해서 청소년 쉼터로 갔는데, 거기에서는 언니들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 가지는 못했죠.”

보호자가 있는 청소년들이 쉼터에 들어가면 당연히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하 씨 역시 그랬죠. 아버지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가면 한동안은 체벌이 뜸했지

만, 그 악순환을 쉽게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담도 수없이 받았고, 놀이 치료와 미술 치료 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나이 어린 내가 바뀌어야지 이 나이에 내가 바뀔 수는 없지 않느냐”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에는 이겨낼 재간이 없었죠. 어린 그녀가 폭력을 피할 수 있는 건 결국 가출뿐... .

“가출캠이 하는 일이란 PC방이나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빈집이나 빈차를 털고, 오토바이를 타는 게 고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가출을 했어도 학교에는 꼬박꼬박 나갔는데 나중에는 그마저도 어려워졌죠. 제가 학구열에 불타서가 아니라, 교복 입은 아이들을 보면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크더라고요. 가출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한심하게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게 검정고시였습니다. 19세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국비 지원을 받아 바리스타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학원에서 연결해준 덕분에 다른 학원의 보조 강사로 일할 수도 있게 되었죠.

“그러던 중 아버지에게 메일로 연락을 받게 됐어요.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었죠. 그 말을 믿고 귀가한 게 21세.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다가 하려니 너무 버거운 거 있죠? 이왕이면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수능 준비를 했고, 세종사이버대학교 조리산업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된 거예요.”

그녀 나이 어느덧 25세. 19세 때부터 바리스타 활동을 시작했으니 벌써 경력 6년 차입니다. 교육청에서 올린 중학교 자유학기제 바리스타 교육 공고를 보고 지원, 합격해 지금은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는 그녀. 이 정도면 큰 박수 받을 만하지 않나요?

홀트라는 또 하나의 가족을 만나며...

그녀는 지난 7월 27일 임대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우울해하던 그녀의 얼굴에 요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난 이유입니다.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생후 1년 된 연우(가명)에게 아빠는 없습니다. 아이를 가진 후 연락이 끊겼으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중학교 친구였어요. 재수학원을 다니며 도움받고자 연락을 취한 게 인연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군대에 있



는 동안 아이가 생겼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저희 부모님과 그 친구 쪽 생각은 다르더군요. 간혹 연락은 하지만 연우는 그냥 제 아이예요.”

가족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는 대신, 그녀는 홀트라는 또 다른 가족을 만났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홀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미혼모로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죠.

“연우가 5개월 때 365베이비키트 지원을 받은 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롯데리아에서 지원하는 돌잔치 후원도 받았고, 지금은 홀트 자조모임 등을 통해 심리적·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죠.”

그녀는 아이와 자신이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기를 꿈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탈리아에서 개최하는 바리스타 대회에도 출전할 생각이죠. 10월 본선까지 진출하게 되면 전액 지원 아래 아이와 함께 이탈리아행 비행기를 타게 되니, 요즘 그녀는 꿈 같은 그 기대만으로도 설렘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격이 밝은 편인데, 더 밝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 어려운 환경에 처하셨더라도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드시 행복이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웃음).”

그녀 얼굴에 물든 행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합니다. Holt

노란 앞치마를 입은 천사

이화여자대학교 봉사동아리 '아가뽀뽀'

무려 15년째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봉사를 이어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와 대외 활동으로 바쁜 대학 생활이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가장 먼저 비워둡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화여자대학교 봉사동아리 '아가뽀뽀'입니다.



홀트 아이들과의 소중한 인연

“윤하야~ 미끄럼틀은 앉아서 타는 거예요.” “이리오세요~ 트럼펫린 타고 놀자~”

인터뷰를 위해 홀트 일시보호소 내에 있는 발달놀이터를 찾은 날, 10여 명의 아이들 사이로 노란앞치마를 입은 아가뽀뽀 동아리 학생들이 보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앳된 목소리지만 능숙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손길은 어느 엄마 못지않습니다.

“처음 봉사를 했을 때는 지금보다 소극적이었어요. 하지만 담당 선생님도 워낙 잘 알려주고, 아이들과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 저절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이랑 최대한 잘 놀아주자!’ 오늘 제 목표예요(웃음).”

아이들이 좋아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동아리에 가입했다는 윤하영(간호학과 2학년) 씨. 일주일에 한 번 3~4시간씩, 2인 1조로 일시보호소를 찾습니다.

아가뽀뽀 동아리는 홀트와 인연이 깊습니다. 2001년 일시보호소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화여대 학생들 한두 명이 봉사를 온 것이 '아가뽀뽀'의 시작입니다. 이후 정식 동아리를 만들어 지금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홀트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죠.

- 1 아이와 놀이 중인 하영 씨
- 2 늘 엄마미소를 짓는 민희 씨
- 3 아이들이 돌아간 후 뒷정리도 '아가뽀뽀'의 몫
- 4 2009년 코오롱그룹 문화재단의 우정선행상을 수상



화장은 No, 성실함은 Yes!

아가뽀뽀 동아리는 여타 봉사동아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아리 회장인 김민희(국문과 2학년) 씨는 자신의 손등을 내보이며 말합니다.

“저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위생적인 걸 철저히 해요. 봉사할 때는 옷이며 양말도 깨끗한 걸로 챙겨 와요. 화장은 물론이고 매니큐어 바르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요.”

신입회원을 뽑는 기준도 이런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책임감과 봉사활동에 빠지지 않는 성실함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이겠지요.

단순히 하루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걸 봉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15년의 전통이 있는 동아리답게 체계적인 규율이 존재합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두 번 오는데 그때마다 봉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아이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체크'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끼리는 줄여서 '자책'이라고 해요(웃음). 봉사가 끝나면 오늘 놀아준 아이에 대한 정보를 채팅방에 공유해요. 다음에 더 잘 놀아주기 위한 방편이고, 기록으로도 남기기 위한 거예요.”

요. 예를 들어 몇 월 며칠, 유림이가 처음에는 잘 놀았는데 조금 쪼였거렸다. 이유가 무엇이었다. 이런 내용부터 오늘 입은 옷, 좋아하는 장난감까지 다 적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의 성장과정이나 특이한 점을 알 수 있죠.”

아이들의 깨끗한 마음만으로도...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체력 소모가 큰일이지만 아이들과 놀아줄 때면 없던 힘도 솟아난다는 하영 씨. 힘든 점이 없느냐 묻는 질문에 말장게 웃으며 말합니다.

“힘들지 않아요. 함께 비눗방울 놀이도 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사실 아이들의 깨끗한 마음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웃음). 가끔 아이들이 입양 가고 없으면 허전한 마음도 들지만 양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잘 대해주는 걸 보면 마음이 놓여요.”

아이들에게 얻는 게 더 많으며 환하게 웃는 아가뽀뽀 학생들을 보며 인터뷰 내내 제 마음도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학생들 덕분에 우리 세상도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았을까요? 아가뽀뽀 동아리의 상징인 노란 앞치마를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 볼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동바리들 잘 다녀왔수다!

* 동바리(제주방언, 어린이)



홀트는 학대아동을 위한 쉼터 '홀트미추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은 쉼터의 아이들은 한국 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의 지원으로 2박3일간 환상의 섬 제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아름다운 섬에서 재미있는 추억을 쌓았을까요?

'중국, 호주, 우주, 일본, 태국, 제주도' 이번 여행을 계획하면서 어디를 가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아이들이 말한 여행지였습니다. 여행비를 걱정하는 어른들의 고민은 알 바 아니었지요. 특히 예린이는 학교친구 서영이가 가족들과 다녀온 태국여행을 부러워하던 참이라 열심히 태국을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실랑이할 거란 예상을 깨고 희망 여행지는 간단히 정리되었습니다. 초등 1학년인 고은이가 가고 싶다는 '우주'는 언니들의 현실적인(?) 설득으로 처음부터 제외되었고, 다른 아이들이 가고 싶다는 외국을 두고 설왕설래 하던 차, 불현듯 '아이들의 여권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어른들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외국은 갈 수 없는 우주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 비행기를 타고 싶다는 공통적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제주도로 여행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홀트미추홀은 학대아동들을 위한 응급조치시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입소가 당일에 이루어지고 퇴소역시 짧은 시간 내에 결정되기에 '내일 우리 식구가 몇 명일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정신이상 증세로 자녀들을 학대했던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연수, 연지자매는 집으로 돌아갔고, 엄마의 가출로 아빠가 대리운전 하는 밤에 혼자 집에 남아 무서움에 떨던 4학년 인선이기도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사이 4명의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변화로 처음 10여 명을 예상했던 여행은 인솔자 포함 총 6명의 식구들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선생님은 오후에 비행기가 출발하니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씻고 공항 갈 준비를 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비행기가 창밖에 보이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비행기에서 승무원 언니가 오렌지주스도 주셨어요. 예린이 언니는 두 번을 먹었더라고요. 저는 한번만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워라...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 우리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차귀도라는 섬에 가서 잠수함을 탔어요. 조금 뒤에 잠수부 아저씨가 나타나자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왔어요. 아저씨가 먹이를 주시더라고요. 잠수함에서 내려 저녁을 먹고 호텔에 갔는데 방에 있는 침대가 어찌나 폭신하던지... 금방 푹아떨어지고 말았네요.



둘째 날


일찍 일어나 하얀 요트를 탔더라고요. 요트를 운전하는 아저씨도 요트처럼 하얀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건너편에 앉아있는 정원언니의 긴 머리카락이 마구 날렸는데 꼭 영화속 주인공 같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마라도라는 섬에 갔어요. 가이드언니가 섬을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했어요. 어른들은 여길 왜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더워서 힘들었지만 시원한 슬러시를 사주셔서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또 저녁에는 서커스월드에서 서커스를 봤어요. 큰 통속에 오토바이 6대가 들어가 큰 소리를 내며 여기저기를 마구 달리는데 눈을 땔 수 없었어요.



마지막 날

오늘은 정말로 재미있었어요. 말을 탔거든요. 제가 말안장에 올라타니 말이 타박타박 걸었어요. 살짝 겁나긴 했지만 재미삼아 두 발로 말의 옆구리를 찔더니 갑자기 달리기 시작해서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금방 신나서 막 웃었어요. 다음에 어른이 되면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맨날 타고 다닐래요. 오후엔 돌고래쇼도 보고 물고기도 보러 갔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본 것 같아요. 벌써 제주도여행이 끝났나봐요. 가이드언니가 저녁 먹고 공항에 데려다준대요. 그나저나 큰일 났어요 너무 졸려요. 비행기에서 오렌지주스 마셔야 하는데 잠들면 어찌죠?



2박 3일의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홀트미추홀에서 생활하는 아동들 대부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고스란히 내면에 남아 있어 함께 생활하는 식구들끼리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인지라 여행이나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공간에서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개학하면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추억을 갖고자 했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바람은 성공한 듯합니다. 여행을 다녀온 지금까지 큰 다툼 없이 지내는 걸 보면 말이지요. 

글_이현주 원장 · 홀트미추홀

* 여행을 지원해주신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에게 큰 감사드립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특성상 아동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요

“선생님~우리 애 사진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재롱부리는 아이 뒤로 보이는 거실은 온통 장난감입니다. 자라나는 모습 놓칠새라 때마다 찍어놓은 사진도 한가득이네요.

이런 위탁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지, 아이들은 오늘도 햇빛 받은 나무처럼 무럭무럭 성장 중입니다!

채민이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명희 위탁모

처음에 지인에게 위탁모 활동을 소개 받고 1년을 망설였다는 이명희 위탁모. 하지만 이제는 망설임 대신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를 돌봅니다.

“집안에 대화가 많아졌어요. 친딸이 한 명 있는데 아이를 정말 좋아해요. 첫 아이가 입양 갔을 때는 웃도 못 빨게 했어요~ 아이 낳새 없어진다고요. 가족들이 모여 아이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하하호호 웃고 있죠.”

미숙아로 태어난 채민이(가명, 23개월)는 조금만 움직여도 토를 하는 바람에 집 밖에 잘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위탁모의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에 지금은 건강해진 채민이는 곧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갑니다.

“그저 바람이라면 아프지 않고, 늘 행복하게 지냈으면 해요.”



내년이면 20년, 육아 베테랑 문한기 위탁모

눈망울이 퐁퐁퐁퐁한 준우(가명, 15개월)를 돌보는 문한기 위탁모는 내년이면 활동한 지 20년이 됩니다.

“그동안 50여 명의 아이를 돌봤지만 여전히 걱정이예요.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바라는 게 다 다르니까요.”

오랜 경력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힘든 일도, 좋은 일도 많았다는 문한기 위탁모에게는 유독 기억에 남은 아이가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성장하는 모습을 사진 앨범으로 만들어 선물로 준 아이가 있어요. 언제 찍었고, 어디서 찍었는지 사진 하나하나에 다 적었더라고요. 15살 때는 한국에 와서 양부모님과 같이 밥도 먹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처럼 잘 키워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주영이를 더 좋아해요” 한희정 위탁모



아이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한희정 위탁모의 모습을 보고 지인이 홀트의 위탁모 활동을 추천해줬습니다.

“저도 정말 아이를 좋아하는데 저희 가족들은 저보다 더 아이를 더 좋아해요. 근처에 사시는 친정아버지는 전화로 매일 주영이(가명, 13개월)가 보고 싶다고 해요(웃음). 같이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온 가족의 도움으로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한희정 위탁모는 요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으니까요.”

아이를 위해 건강을 챙긴다며 활짝 웃는 한희정 위탁모. 주영이의 미소가 그 모습을 닮아 있네요!



글_신유정·홍보팀



사랑 가득한 위탁가정을 찾습니다

위탁가정 지원

- 1) 소정의 양육비 및 교통비 지급
- 2) 아동 양육 물품 지급
- 3) 아동 의료 지원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 2) 건강진단서 1부(간염 여부 기록 포함)

문의 및 신청

홀트아동복지회 아동양육팀/ 02) 331-7040~7045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동 471)





특별한 날, 특별한 선물

상자 만드는 엄마, 하루에코 우명희

‘상자 만드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우명희 씨. 친환경 소재인 자작 나무로 작품을 만드는 1인 기업 ‘하루에코’의 대표입니다. 현재 홀트는 자녀 첫돌, 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후원하는 캠페인 ‘특별한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명희 씨는 이 특별한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분에게 예쁜 액자를 제작해주고 있는데요. 두 아이의 엄마로, 기업가로, 홀트의 재능기부자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명희 씨의 나눔을 소개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물 ‘하루에코’

2013년 겨울, 홀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싶다는 문의가 왔습니다. 하루에코 대표 우명희 씨였는데요. 이후에 직접 만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명희 씨는 경력 단절 이후 찾아온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재활용품 리폼 작품’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호르몬에 예민해져가는 아이들을 위해 하나 둘씩 제품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재능을 발견했고,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우명희 씨. 아이들을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홀트가 떠올랐고, 작은 소품이지만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주고 싶어 홀트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홀트패밀리 주영훈 · 이윤미 부부에게 전달한 사랑의 배냇상자

재능기부를 하던 중 주영훈 · 이윤미 부부가 홀트패밀리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반가웠다는 우명희 씨.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통통 튀던 이윤미 씨의 연기를 좋아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윤미 씨의 둘째 출산 소식에 배냇상자와 액자를 만들어 홀트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주영훈 씨는 SNS에 “우리 팬이시라며 손수 만드는 액자와 배냇상자를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보내주신 하루에코...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며 감사를 표현해주었습니다.

작게 시작한 나눔, 점점 커지는 기쁨

우명희 씨는 처음 홀트를 방문했을 때를 떠올립니다. 작은 실천을 다짐하고 문을 나서는데, 마침 위탁모와 아이가 헤어지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위탁모의 통곡에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는 그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에는 그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재능기부라는 말이 거창해 부담스럽지만, 실제로는 나누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그녀에게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성경구절처럼 작게 시작한 나눔이지만 앞으로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져 기부 의 크기를 조금씩 늘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특별하고, 큰 기쁨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사람, 바로 그녀입니다. 

클_방은지 · 나눔지원팀



하루에코는?

하루에코는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1인 창조기업으로 배냇상자, 시계, 액자 등 소품을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의_www.harooe.co.kr

특별한 후원은?

나와 우리 가족, 친구들의 특별한 날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후원합니다. 당신의 기념일을 더욱 특별한 날로 만들어보세요~ 하루에코에서 제작한 세상에 하나뿐인 작은 소품이 배달됩니다.

특별한 후원 문의_02-331-7071

홀트 탐리더스를 소개합니다!

2010년에 창립된 홀트 '탐리더스(Top-leaders)'는 홀트의 사업과 나눔에 관심이 있는 사회인들의 모임입니다. 현재 24명의 탐리더스 의원들은 적극적인 기부와 국내외의 봉사활동, 정기·비정기 모임을 통해 홀트가 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탐리더스 의원들에게 후원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김윤정(탐리더스 회장 / ㈜씨스테인웨그로 대표)

30대 후반부터 내가 누리는 여유와 감사함이 하나님과 여러사람 덕택이라는 생각이 들어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원을 할수록 마음의 풍족함과 성숙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권익도 (탐리더스 고문 / 드림폴 고문)

과거나 현재나 인간의 마음은 약하고 쉽게 병이 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마음의 치료약은 나

눔이죠.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튼튼하게 성장도 시킨답니다. 저는 저의 튼튼한 마음을 위해 나눔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신기한 건 때가 되면 이 튼튼한 마음이 도움을 받는 대상자들에게도 온전히 전달되는 느낌이 들더군요.



김성주 / SJ I&C 대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또한 명예와 돈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일을 행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경희(홀트아동복지회 이사)

1982년 우연한 기회에 정립회관의 소아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자선모임 참석 후, 홀트 후원회 임원이었던 지인을 통해(당시 서울후원회 정연숙 부회장) 홀트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의 응원과 함께 저의 롤모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신 모든 것을 오히려 전달하는 임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수진(홀트전국후원회 회장)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감사를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홀트를 통로로 작은 섬김을 할 수 있어 제가 더 기쁩니다.



신용운(홀트한사랑회 회장/ 퍼니웍스 대표)

홀트로부터 귀한 아이들 세 명을 가족으로 품게 된 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받는 기쁨도 크지만 나누는 기쁨도 그에 못지않게 크다는 것을 알기에 나눔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화정(덕생당 한의원 원장)

세상의 많은 나무들이 다람쥐에 의해 심겨진 걸 알고 계십니까? 다람쥐는 도토리를 땅에 숨겨 놓고 숨긴 곳을 종종 잊어버리는데, 그 도토리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언젠가 그 선이 자라 큰 선이 될 것입니다.



서영자(홀트전국후원회 고문)

작지만 남을 돕는 일은 큰 기쁨이며, 도울수록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박영옥(홀트전국후원회 고문)

지난해 꿈동이들이 후원자에게 쓴 편지를 읽고 참 흐뭇했습니다. 저의 작은 마음이 전달되어 꿈동이들이 꿈을 갖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보람된 일이지요.

*꿈동이: 탐리더스 기금으로 교육비 후원을 받고 있는 전국 100명의 초·중·고등학생



정명(공증인 정명사무소 대표)

“도는 사람과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 않다.”
‘전 세계의 어린이가 행복해질 때까지’라는 홀트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데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은주(우리소아청소년과 원장)



직업상 아이들을 많이 접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어떤 아이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홀트 탐리더스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외면했던 소외 계층, 특히 아이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전보다 현재 내 삶에 더 충실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주 · 나눔협력팀**

탐리더스 활동

- 2010. 1. 22 탐리더스 위촉식 및 창립총회(14인)
- 2016. 현재 총 24명 위원 활동 / 저소득가정아동 '꿈과희망지원사업' 교육비 지원

탐리더스 참여 문의

• 나눔협력팀 02-331-7145 / withholt@holt.or.kr

개구쟁이 지호의 ‘무한도전!’

지난해 여름, <무한도전>에 특별한 가족이 출연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양부모와 지호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우연의 일치로 국민 MC 유재석 씨의 아들과 이름이 같아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었죠. 당시 유재석 씨는 물론, 많은 시청자들이 지호가 따뜻한 양부모 아래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길 기도했었습니다. 방송 1년 후, 지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미국에서 전해온 개구쟁이 지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 1 다섯명 가족이 된 후 한국 관광
- 2 미국에서 행복한 지호 모습
- 3 형을 좋아하는 지호는, 형이 하는 행동을 곧잘 따라한다
- 4 무한도전 출연모습

넘치는 사랑 속에서...

지호는 작년 8월 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호는 밝은 성격과 특유의 개구쟁이 미소로 온 가족들을 웃게 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는 특히 형을 제일 많이 따른다고 하더군요. 형이 하는 놀이, 형이 하는 행동을 모두 따라하는 껌딱지 동생이 되었답니다. 양부모는 지호에게 김밥도 만들어 주고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도 보여주며 한국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양부모가 이따금씩 보내주는 사진 속의 지호는 너무나도 즐거워 보이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걸 느낄 수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양부모는 지호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입양을 통해 가족이 더욱 끈끈해졌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찾는 많은 아이들이 지호와 같이 좋은 양부모를 만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호가 커서 한국을 찾았을 때, 유재석 씨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글 _ 류민현 · 국외협력팀

따뜻했던 첫 만남

지호의 양부모 가족을 처음 만난 건 작년 7월 6일, 해외입양의 마지막 절차를 위해 가족 모두가 한국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가족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따뜻함이었습니다. 이 가족에게서는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행복한 가족의 느낌이 폴폴 났지요. 첫 만남을 앞두고 양아빠와 양엄마, 11살 형과 7살 누나는 지호를 만난다는 사실에 매우 들떠 있었지만 낮잠 시간과 겹친 지호는 가족을 만난 지 5분 만에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14시간을 넘게 날아온 양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멧쩍게 말을 건넌 저에게 양엄마는 지호를 품에 안고 있는 이 순간이 마치 꿈만 같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호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그리고 한국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양부모 가족은 한국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양부모 가족은 한국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애청자였기 때문에 한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았고, 특별히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지호와의 미팅이 있던 날, <무한도전> 촬영을 온 유재석 씨를 만나게 된 것 아니겠어요?

무한도전, 방송 출연 그 후

짧은 <무한도전> 출연 후 지호네 가족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이 늘어 가는 곳마다 유명인사처럼 인사를 받았다는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20대 커플은 지호를 알아보고 함께 사진을 찍은 후 SNS에 올리기도 했고,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께서는 양부모의 손을 꼬옥 잡으며 아이를 입양해주어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수철이와 지수가 바라보는 따뜻한 세상



수철이(가명, 12세)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면 항상 배가 곱습니다. 점심 급식시간에는 저녁 끼니까지 때우기 위해 많이 먹어 종종 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빈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맞이하면 마음의 허기짐이 더해져 더욱 배가 곱아집니다. 어둡고 좁은 방 한구석에서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워보지만 이조차 떨어지고 없는 날에는 무작정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생활하는 지수(가명, 11세)는 방학이 즐겁지 않습니다. 급식 지원으로 식권을 받지만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이 부끄럽고 눈치가 보입니다. 고민하다가 편의점에서 라면과 삼각 김밥을 사 먹지만 돌아서면 금방 배고파집니다. 지수의 소원은 할머니와 집에서 따뜻한 밥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도시락을 사랑으로, 사랑을 행동으로

홀트수영종합복지관에서는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도시락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지만 식사를 걱정하고 있는 결식아동, 수영구드림스타트센터 취약계층 아동 15명에게 안정적인 영양 섭취를 위한 도시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700만 원의 후원금 지원뿐 아니라 임직원이 함께 도시락 전달 봉사를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모금을 통해 400여 만 원과 SK해운 가족봉사단의 후원을 통해 행복한 변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도시락을 만드는 일에도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함께 하는데요. 광수생각, 누리사랑회, 수영가인회, 아이코리아, 자성대모타리클럽, 토깽이봉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홀트부산후원회, SK해운가족봉사단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담아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전사업개발(주) 남부산지사에서 도시락 배달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정성으로 만든 도시락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5명의 결식아동들이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전달됩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와 여러 사람의 정성이 가득 담긴, 사랑의 도시락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반찬

도시락 만들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봉사자는 모두 엄마들입니다. 봉사자들은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반찬 한 가지를 만들더라도 내 아이, 내 남편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정성이 배가 될 수밖에요.

전미경 자원봉사자는 말합니다. "반찬을 만들 때 내 아이가 먹는다고 생각하며 영양 가득한 식단을 만들고 있어요. 도시락에 정성을 담다 보면 봉사활동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엄마의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봉사단원들과 만나서 레시피도 공유하고,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회의도 해요. 반찬 만드는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쉽죠."

정성 가득한 선물을 받은 아이들

도시락을 받고 있는 수철이의 할머니는 도시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깨끗한 용기 안에 정갈한 음식, 무엇보다 손이 많이 가서 할머니가 직접 만들기 힘든 음식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수의 고모는 정성 가득한 음식으로 대접받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보니 어릴 적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저녁상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도시락 하나로 보람을 줄 수도 있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여러 정성들이 모여서 우리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고, 따뜻한 사랑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이웃들이 많기에 내일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HOIT

글 _ 권민욱 팀장 ·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1 결식아동 지원사업 간담회
2 사랑이 가득 담긴 도시락
3 한국자산관리공사 후원금 전달식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매월 우리복지관의 결식아동을 위한 도시락 만들기 봉사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꿈꾸는 선한 이웃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 다음 카카오 같이가치는 온라인 모금을 통해 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결식아동지원사업 '수철이와 지수에게 따뜻한 밥을 선물해주세요' 모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사회공헌 ●

해성디에스(주), 교육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



8월 16일, 해성디에스(주)는 후원금 2,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입양 대상 아동과 미혼한부모의 미래를 위한 교육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우빈 팬, 캄보디아에 스타미 기부



7월 29일 배우 김우빈 씨의 팬으로 구성된 'DC 김우빈 갤러리'에서 캄보디아 아동을 위해 쌀 1톤을 기부했다. 이 쌀은 홀트드림센터의 빈곤 아동 200명을 위한 점심 급식에 사용된다.

롯데그룹 신입사원 디어패밀리박스 봉사활동



7월 20일, 롯데그룹 신입사원 670명이 '디어패밀리박스'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번에 완성된 인형들은 롯데그룹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mom편한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전력 10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기부



7월 20일, 한국전력 서울본부에서는 세계 전력회사 1위 달성 기념 이벤트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을 기부했다.

배우 진구 후원 전달식



예술의 전당에서 7월 7일, 배우 진구 씨와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진구 씨는 한겨레 신문사가 주최하는 <로이터 사진전>의 오디오 가이드 목소리 재능기부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기부했다.

● 본부 ●

꿈과 희망 지원 꿈동이 리더십 여름캠프



8월 4~5일, 1박 2일간 한국민속촌 유스호스텔에서 꿈동이 리더십 여름캠프가 진행됐다. 탐리더스 회원들과 홍보대사 선은 함께 참가해 꿈동이를 응원했다. 또한 글로리월드 등의 물품 후원도 이어졌다.

제5차 세계한인입양인대회



8월 2일부터 7일까지 국제한인입양인협회(KAA)가 개최한 '제5차 세계한인입양인대회'에 말리홀트 이사장 외 임직원이 참가했다. 미국, 유럽 등 20여 개국에 거주하는 한인 입양인과 그 가족 등 500여 명이 참가해 친목과 화합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스물란 홀트 대학생 봉사단 캄보디아 파견



7월 26일, 행정자치부 후원으로 스물란 홀트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폴리텍대 이종호 교수가 이끄는 전기팀을 포함한 봉사단은 홀트드림센터가 있는 안천 지역에서 전기수리와 교육봉사를 펼쳤다.

● 지방사무소 ●

부산사무소, 아이젠트리 후원금 전달



후원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아이젠트리는 7월 15일, 아동양육물품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보다 더 양질의 양육물품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구사무소, 국내입양 예비 양부모 교육



6월 20일, 대구사무소에서는 10가정(20명)의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 및 입양 아동 성장·발달 특성,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충청사무소,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진행



충청사무소에서는 2016년 8월 18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취학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반편견 입양 교육을 실시했으며 입양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광주사무소, 국내입양가족 캠프



7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로 현대차그룹 후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전북 완주시에 소재한 완주힐조타운관광농원에서 국내입양가족 역량 강화 캠프를 실시했다.

● 홀트일산복지타운 ●

새 전동스쿠터 제공



국제로터리클럽과 고양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의 도움으로 거동이 불편한 거주인 6명에게 7월 19일, 새 전동스쿠터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제 홀트타운 곳곳을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일산 자립생활센터와 협약식 체결



7월 1일,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약식을 맺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협약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홀트학교 ●

초등부 교내 캠프 진행



7월 7일~8일 초등부 교내 캠프를 진행했다. 일산킨텍스 키즈월드에서 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체험박물관에 방문해 봉사를 나온 CJ직원과 파충류 체험, 마술쇼 관람 등의 시간을 함께 했다.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에서 특별 대상 수상



6월 11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1회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에서 예그리나 오케스트라 팀이 레미제라블을 연주하여 특별대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다양한 음악을 경험하고, 그동안 묵묵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마음페스티벌 개최



6월 11일, 일산문화공원에서 '제4회 고양시장애인가족 한마음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고양시의 장애인 등 약 1,300명이 참가해 장애인밴드 축하공연과 놀이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

대구복지관,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



8월 11일, 대구복지관에서는 맥치과병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맥치과병원 조영준 원장은 지역 내 저소득청소년 10명에게 매년 1,00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하고, 지역주민에게 무료 치과진료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운봉복지관, '노블아트오페라' 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노블아트오페라'가 6월 15일,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다. '희망 이야기'를 주제로 뮤지컬, 오페라, 영화의 대표곡을 피아노 반주에 맞춰 성악가가 직접 공연해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남복지관, 지구사랑 환경사랑 그림대회



6월 2일, 이마트 하남점과 함께 하는 지구사랑 환경사랑 그림대회가 진행됐다. 하남시 아동 78명이 참석했으며 15명의 아동들이 상장과 부상을 수여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아동은 전국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영복지관, 직장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선남선녀'



6월 25일 LG유플러스와 하나투어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함께했다. 직접 요리를 만들어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음식을 전달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본리복지관, '복달복달 삼계탕' 전달



7월 27일 중복을 맞이해 지역의 복지대상 가정에 삼계탕을 전달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 및 여러 단체의 후원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아침들, 롯데월드 문화체험 'Summer Holiday'



미혼한부모가족 30명은 8월 5일 롯데복지재단의 지원으로 롯데월드에 방문했다.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타고 멋진 퍼레이드도 즐기며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운들, 아동 합동 돌잔치

7월 15일에 합동 돌잔치를 진행했다. 이날 아동들을 축하하기 위해 후원자 외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베베로엘, 삼성생명에서는 돌상, 아동의류 등 다양한 물품 지원을 해주어 더욱 풍성한 잔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아름들, '활력충전, 육아휴머니들이'

아름들에서는 매일 '육아휴머니들이'를 진행하고 있다. 7월 30일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사진전과 그림전시를 감상하며 감성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었다.

대구클로버, 롯데리아 후원으로 돌잔치



7월 5일 (주)롯데리아의 후원으로 T.G.I 범어점에서 돌잔치가 열렸다. 미혼한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대전클로버, 아쿠아리움 가족 나들이

6월 27일, 대전 아쿠아리움에서 나들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학업과 직업 교육 등으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은 미혼한부모에게 아이들과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포건강가정지원센터,

예비부부교실 '우리 결혼할까요?'



7월 2일과 9일 2주에 걸쳐 건강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예비부부교실이 진행됐다. 다름을 이해하고, 또 결혼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삼행프로젝트



7월2일~3일 1·2·3세대 가족 74명을 대상으로 3세대 가족힐링캠프를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열었다. 삼행프로젝트의 참석자들은 3세대 가족의 화합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요리 강사 양성 과정



마포구 여성취·창업지원사업으로 다문화요리 강사양성 과정을 진행했으며, 7월 20일 수료식을 가졌다. 다문화 요리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결혼이민자는 마포구 내 어린이집 20기관을 방문해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 **심리상담센터** ●

대구심리상담센터, 양육 토크 콘서트 진행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매일 4번째 월요일에 '우리 아이의 심리' 등 매일 다른 주제로 양육 토크 콘서트를 실시한다. 양육 토크 콘서트에는 40명 정도의 지역 가족들이 참여해 양육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다.

● **전주영아원** ●

키즈 카페 나들이

7월 4일 전북후원회와 함께 키즈 카페를 방문했



다. 다양한 놀이기구와 볼풀장에서 신나게 놀며 신체활동과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어린이집** ●

중동어린이집, 부모 참여수업



6월 4일 만 5세반이 '가족'이라는 주제로 부모 참여수업을 했다. 유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풍경을 만들고 체육특별활동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들에게는 어린이집과 자녀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고,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마포어린이집, 원내캠핑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원내캠핑을 진행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일정임에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었다.

홀트어린이이집, 단오행사



6월 9일 세시풍속 단오를 맞이해 단오선도 만들고 썩인절미를 만들어 맛있게 나누어 먹고 반벌로 단오 씨름을 하는 등 우리 고유 먹거리와 놀이문화를 체험했다.

은방울어린이집, 비전센터와 라바파크 소풍

7월 14일 남양주에 있는 비전센터 & 라바파크 소풍을 다녀왔다. 비전센터와 라바파크에서 소리를 느껴보는 체험 등 다양한 활동 및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 또 놀이기구를 타며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 **후원회** ●

강원후원회, 1박 2일 워크숍



6월 20~21일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에서 1박2일 워크숍을 진행했다. 다문화 가족에게 듣는 그 나라 이야기, 천연화장품 만들기, 나눔 시간(회원물품경매), 미술관 관람 등을 통해 회원들의 단합과 힐링을 가지는 시간을 보냈다.

인천 후원회,

한부모가정아동복지 사랑나눔바자회

7월 9일 홀트인천복지센터에서는 바자회가 개최되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입양부모님들께서 참석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으며, 이날의 후원금 수입 전액은 한부모가정 아동 돕기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후원사업 소개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기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비,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미혼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자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3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개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나눔 의식을 고취하는 착한 인성 교육
교육대상	1.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급 (※ 초등학교의 경우 3학년 이상) 2. 인성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30명 이상 권장), 전교생 강당교육 가능, 기업·교회 교육 가능
교육내용	1. About Family : 가족의 정의와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함 2. We are Family :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 함양 3. Family Maker : 가족의 의미 확장을 통해 나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함
기대효과	1. 자신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함 2. 학우들 모두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 학교폭력, 왕따 등의 학교문제 예방 3. 가족이 되어주는 활동가(family maker)가 되어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시민의식 함양
문의	02-331-7143 , withholt@holt.or.kr



18번째 이에우* 143의 사랑해

신한은행이 143개 글로벌 네트워크로 세계를 향해 뻗어갑니다

신한베트남은행의 지점이 18개가 될 예정입니다.
베트남의 금융이 더 편리하고, 더 따뜻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도, 인도네시아에도 그리고 호주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의 금융이 행복해지도록
World Class Bank 신한은행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에우(yêu)는 베트남어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은행부문 1위
한국 능률협회 컨설팅 선정(2016)

금융브랜드 대한민국 1위, 세계 44위
The Banker 誌 선정(2016)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100대 기업 세계 18위
다보스 포럼 발표(2016)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